"다양한 논술 정보 유익했다"

학부모·학생 "대학입시 전반적 흐름 파악"

■本報·광주대성학원 개최 '논술 설명회' 성료

광주일보와 광주대성학원이 22일 개최한 '2007학년도 정시 대비 논술 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관련기사 8면〉

이날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학생·학부모·일선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 250명이 참석, 앞으로 각 대학별로 치러질 논술고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 수능이 대체로 평이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의 경우 수도권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교육여건이 취약해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 공대 1학년을 휴학하고 대입 준비 중인 김모(여·21·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당초 전남대 사대 국어교육과를 지망했으나 수능 원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인천교대로 바꿀 계획"이라며 "인천교대의 경우 논술을 10% 반영하는 만큼 불안한 마음에 설명회에 참가했는데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주대성여고 3년 정모(18)양은 "이화여대 사대를 염두에 두고 공부했지만 수능 원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는 바람에 논술에서 만회할 생각"이라며 "논술고사는 물론 다양한 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 운남고에 재학 중인 고 3 딸에게 논술고사 관련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설명회에 왔다는 주부 양모(47)씨는 "딸이 이과이다 보니 문과에 비해 논술고사가 덜 부담스럽지만 설명회를 통해 대학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온 조성식 서울 초암논술아카데미 입시전략팀장은 "내신 실질반영률이 낮은 상황에서 수능은 대학 및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될 뿐이고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며 논술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팀장은 "정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나 백분위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원점수만 가지고 지원대학과 학과까지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원점수 기준의 배치표를 활용해 자신이 지원가능한 대학권을 정한 뒤 논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광주대성학원과 공동으로 수능성적이 개별 통보(12월13일)되고 대학별 배치기준표가 작성되는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2007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연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일보와 광주대성학원이 22일 마련한 '2007학년도 정시 대비 논술 설명회'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내용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사 101명 연가투쟁 참여

시·도교육청 "엄중 처리"

22일 서울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 투쟁에 광주지부 31명, 전남지부 70명 등 광주·전남 전교조 교사 101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 5명 외에 13명이 연가를, 13명이 무단결근하는 등 모두 31명이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연가를 냈거나 결근한 전교조 교사가 7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교사가 광주 4천500여명, 전남 8천여명 등 1만 2천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천281명의 전교조 교사가 연차휴가를 냈거나 무단조퇴 또는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교사들은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며 "그러나 일부 교사는 교장에게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 상경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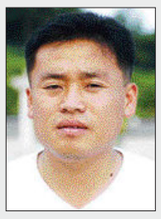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 연가 집회 누적 참가회수를 감안,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가 투쟁에 나선 광주·전남 전교조 교사 대부분이 집행부 또는 분회장인데다 사전에 수업을 조정해 우려했던 수업 결손은 없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아버지 영정 든 모습으로 전세계 심금 울린

'오월 아이' 조천호씨 장가간다



'오월 아이' 조천호(31·광주시청 총무과·사진)씨가 오는 26일 결혼한다.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만5세로 아버지 영정을 든 모습이 외신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조천호씨. 5·18이 20여 년의 세월을 거쳐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를 회복했듯이, 5살의 나이로 시대의 아픔을 겪고 5·18의 상징으로 대변됐던 그가 이제 한 세대를 넘어 가장이 된다.

그는 80년 5월21일 금남로 시위에 나섰다가 총탄에 맞아 숨진 조사천(당시 34세)씨의 2남1녀 중 장남. 군 제대 후 광주시에 특채돼 지난 98년부터 5·18 묘지에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시실 안내와 관리사무소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등 5·18 전도사 역할을 했다. 5·18 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해 보훈처가 관리를 맡게 되면서 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매년 5·18만 되면 쇄도하는 인터뷰에 "5·18 정신은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정신에 있다"는 말을 자주 했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있다.

한편 결혼식은 26일 낮 12시40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영빈관 예식장에서 열리며, 신부는 1년간 사귀어 온 회사원 고은아(27)씨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법관 외부인 접촉 지침 마련 공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동지침은 올해 8월 법관 감찰 및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됐다.

이 지침은 ▲사건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변호사 등과 사적인 접촉 금지 ▲소송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 삼가 ▲특정 변호사와 빈번한 접촉 금지 ▲타인의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관여 금지 ▲법률적 조언이나 법조인 정보 제공 금지 ▲소송 관계인과 금전거래 및 부동산 매매 · 증여 금지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이 학술모임이나 동문모임, 토론회, 경조사 등에서 소송관계인을 만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소송관계인을 사건 종결 직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황우석 파문' 강성근 전 교수

'정직 3개월' 사실상 복직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 "지난 8월11일 제출된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의 소청심사 청구건에 대해 심사한 끝에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검찰 수사에서 연구비 1억1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 8월 1일자로 해임됐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서울대가 이 교수의 성과로 판단한 복제개 '스너피'의 연구에 강 교수 역시 공동 저자로서 기여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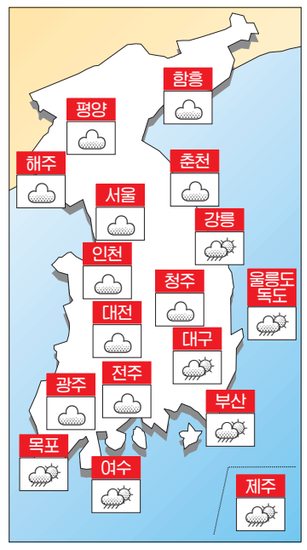
이번 결정은 해임일인 8월 1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강 전 교수는 이미 교수 신분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겨울비 보슬보슬"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5~10㎜의 비가 내리겠다.

11월 23일 (음 10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림	8~13℃
목 포	비온뒤 갬	8~12℃
여 수	비온뒤 갬	10~12℃
완 도	비온뒤 갬	10~12℃
구 례	흐림	5~14℃
해 남	비온뒤 갬	5~12℃
장 흥	비온뒤 갬	6~12℃
고 흥	비온뒤 갬	8~12℃
순 천	흐림	6~14℃
영 광	흐림	6~13℃
진 도	비온뒤 갬	7~12℃
전 주	흐림	7~14℃
남 원	흐림	4~14℃
정 읍	흐림	7~1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3.0~4.0m

목 포 밀물 02:57 15:48 썰물 08:16 21:03
여 수 밀물 10:27 22:21 썰물 03:39 16:34

▲해뜸 07:14 ▲해짐 17:23 ▲달뜸 09:33 ▲달짐 18:5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날 씨						
최저/최고	4/14	4/16	6/15	8/12	5/13	2/12

서길원 육군 31사단장 취임

권오성 공군 제1전비단장도

〈서길원 사단장〉

〈권오성 단장〉

육군 31 사단은 22일 오후 광주 북구 사단 대연병장에서 광주·전남 주요 부대 지휘관과 호국보훈단체 관계자, 장병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길원(50) 소장의 제32대 사단장 취임식을 가졌다.

서길원 신임 사단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경찰이나 국정원 등 지역 통합방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 향토 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부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육사 34기인 서 사단장은 경기 평택 출신으로 육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기획처장·수도군단 포병여단장 등을 지냈다. 이봉원 전 사단장은 육군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공군 제1전투 비행단도 이날 신임 권오성 준장(50)의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권 단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공사(27기)를 졸업했으며, 제 38전투비행 전대장·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장 등을 지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미혼여성 10명중 4명 "결혼 안해도 된다"

만혼 경향도 두드러져

미혼여성 10명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로는 남성이 30~34세, 여성은 25~29세가 꼽히는 등 만혼 경향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 전국의 19~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여성의 58.1%만이 공감했다. 미혼 남성은 그 비율이 71.2%로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의 54.2%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남성의 결혼 적령기로 65.2%가 만 30~34세를, 33%가 25~29세를 들었고, 여성에 대해선 77.6%가 25~29세를 꼽았다. /연합뉴스